

친구에게 주는 청렴 선물

박 호원

경모야, 안녕? 너의 친구 호원이야.

오늘 네가 학교에서 생일 초대를 해주어서, 정말로 기뻐. 너처럼 밝고 씩씩한 친구와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는 너에게 어떤 선물, 무슨 내용의 생일 카드를 줄지 생각을 많이 해보았어. 그러다가 너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편지를 써보기로 했어.

경모야, 내가 너에게 주려는 편지는 바로 '청렴'에 대한 거야. 내가 요즘 읽고 있는 청렴에 대한 글들을 너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었거든. 너처럼 활달하면서도 참으로 바른 친구와 '청렴'에 대해 이야기하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경모야, 내가 청렴에 대해 제일 먼저 읽어보았던 것은 문복레 할머니께서 쓰신 <청렴은 가장 멋진 유산>이라는 글이야. 나는 문복레 할머니의 글을 읽으면서, 문복레 할머니는 어떤 분이실지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았어. 아마도 문복레 할머니는 활짝 웃으실 때 얼굴 한 가득 주름이 피어나시는 할머니일 거야. 마치 우리 할머니 처럼 말이야.

경모야, 문복레 할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으시고 가정을 이끌기 위해 취직을 하셨대. 일자리를 알아볼 때,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았지만 할머니는 떳떳한 방법으로 직장을 구하셨지. 할머니가 취직하신 곳은 어떤 공장이었어. 그곳에서 할머니는 자신보다 어린 직원들과 일을 하면서도, 힘든 일을 도맡아 하시며 늘 바르고 정직하게 생활하셨대.

그런데 그런 할머니한테 큰 위기가 닥쳤어. 공장의 직원을 줄여야 해서 누군가는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 때 할머니는 자신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셨대. 그런데 워낙에 바르고 정직하게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영예로운 정년퇴임도 하셨다는 거야.

경모야 나는 문복레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코끝이 시큰거렸어. 평생을 힘들게 살아오신 할머니의 이야기가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야. 그런 상황에서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신 할머니가 참으로 대단하시다는 걸 느꼈고, 글을 다 읽고 나서도 나도 모르게 문복레 할머니께 박수까지 쳐드렸어.

그리고 경모야, 내가 두 번째로 읽은 글은 <보이지 않는 첫 마음>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어. 글을 읽기 전에는 도대체 무엇이 보이지 않는 첫 마음인지 궁금하기도 했지.

글 속에서 주인공은 우리들의 엄마 같은 분이셨어. 예전에 중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그만 두신 엄마의 이야기여서인지, 글을 읽는 내내 마치 우리 엄마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느낌이 들었어.

중학교 선생님이었던 주인공은 촌지만 받지 않으면 청렴하고 결백한 교사라고 생각하셨대.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으셨어. 학교에 들어온 장학금을 학교에 필요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이었지.

처음에 선생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셨대. 그러다가 장학금을 받기로 된 딱한 아이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으셨던 거야.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을 교장 선생님께서 부르셨지. 그러면서 장학금 받기로 한 아이에게 반드시 장학금을 주자며, '보이지 않는 첫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신 거야. 교장 선생님이 처음으로 교사가 될 때 가졌던 처음의 마음을 말이야.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주인공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도 참 멋진 분이 라는 생각이 들었어. 누구나 잠시 마음이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바르고 정직하고자 하는 첫 마음을 잊지 않으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았으니까.

경모야, 내가 세 번째로 읽은 글은 <청렴 보신탕>이야. 내가 이 글을 읽기 전에 제목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어. 청렴으로 만든 보신탕은 대체 무엇일까? 궁금한 마음으로 글을 읽기 시작했어.

<청렴 보신탕>의 주인공은 국립공원에 다니시는 분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국립공원에 구렁이가 나타났는데, 주인공의 친척 어른께서 그 구렁이를 달라고 하셨지. 몸이 편찮으신 친척 어른께서 구렁이 보신탕을 해먹기 위해서였어. 그러면서 주인공에게 오만 원으로 그 값을 쳐주려했지만 주인공은 거절을 했다. 아픈 친척 앞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인 구렁이를 보호해야한다는 국립공원 직원의 임무를 다한 주인공이었던 거야.

경모야, 이 글 말고도 나는 더 많은 청렴에 관한 글들을 읽었어. <봉투 속에 담긴 소중한 선물>은 20년 전 스승의 날에 주인공이 선생님께 화장품과 꽃다발을 주고 싶었지만, 결국 편지를 주었다는 이야기였어. 그런데 이 주인공 역시 지금은 선생님이 되셔서, 20년 전의 마음을 되새기며 사신대. 정말 멋진 선생님이신 것 같아.

또 <위대한 유산>은 서당을 열고 훈장으로 계시던 주인공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어. 이 글을 읽은 다음에는 땀나무 한 짐의 도벌조차 용납하지 않았던 훈장 아버지의 가르침이 바로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했어.

이 밖에도 <내가 본 남과 북의 공직윤리>, <참 잘 한 선택>, <최고의 처세술>, <씩은 복숭아 찾기>, <바나나 우유와 군밤 세 개> 등이 있었는데, 모든 이야기들이 청렴한 생활과 그 감동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어.

경모야, 지금까지의 편지가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야. 내가 청렴에 관한 글들을 읽으면서, 청렴이야말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내가 읽은 글 속에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선배들은 한결같이 '청렴'이라는 값진 마음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경모야, 너도 나처럼 청렴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어. 내가 조금씩 소개해 준 글들을 네가 직접 읽어본다면, 너에게는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올 테니 말이야. 네가 그 글들을 읽고, 나와 함께 청렴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그런 다음 우리 함께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말이야.

경모야, 너와 나 같은 어린이들이 청렴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 청렴한 대한민국이 되겠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너와 내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일게.

경모야, 생일 축하해!

2016년 10월 21일 너의 친구 호원이가